

4 르포-제주도 줍깅



'줍깅: 탄소중립 평화의 섬 프로젝트'에 참가한 우리학교 참가자들이 제주 올레길 코스를 걸으며 쓰레기를 줍고 있다.

(사진=노윤지 기자)



올레길 곳곳에는 캔, 플라스틱컵, 폐우산, 심지어는 옷가지도 버려져 있었다.

(사진=노윤지 기자)

도 카메라에도 탁 트인 바다를 연신 담았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얼굴을 쓸었다. 입을 다시자 짭조름한 맛이 났다.

가파도는 제주에 남은 마지막 은둔의 섬이라는 말이 있다. 배를 타면 10분밖에 걸리지 않지만 제주도 민조차 잘 가보지 못해서라고 한다.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해안가에는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캔, 일회용 컵과 어업에 사용된 부표, 스티로폼이 많았다. 돌 사이에 낀 쓰레기를 하나씩 집게로 주워 옮겨 담았다.

3일차까지 주운 쓰레기는 어림잡아 20L 쓰레기봉투 40개, 바당길 포대자루 20개다. 20L 쓰레기봉투를 꽉 채웠을 때의 무게가 3kg다. 모두 합쳐 200kg은 족히 넘는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제주지역 해양쓰레기 양은 약 20,000t이다.

제주도가 좋아 참여했다는 쿠리 야마 료(관광학 2019) 씨는 활동에 참가한 유일한 외국인 유학생이다. 다리 부상으로 정형외과에 방문하면서도 클린올레 활동을 끝까지 마쳤던 의지 굳은 학생이기도 하다. 활동 첫날만 하더라도 료 씨는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서 후회하는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2주 전 테니스 대회 때 다쳤던 곳이 올레길 걸으면서 악화됐었거든요. 그런데 함께 걷는 조원들 덕분에 힘을 내서 즐겁게 마칠 수 있었어요.” 학생들은 나이도 전공학과도 다르지만 함께 땀을 흘리며 쓰레기를 주웠다. 18시간 10분, 총 45.8km를 걸으며 수없이 힘든 순간들이 있었지만 그들을 다시 일으킨 것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동료들의 ‘파이팅’ 구호였다.

종강 이후 제주도에 모여 땀을 흘리는 선택의 바탕에는 대의를 위한다는 마음이 있다. “세상을 바꾸는 경희의 움직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들이 일으킨 오늘의 움직임도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먼 곳으로 도달할 수 있길 소망해본다.

제주도 줍깅, 세상을 바꾸는 경희의 실천

노윤지 기자 yoonji2022@khu.ac.kr

경희 74주년을 기념하는 '줍깅: 탄소중립 평화의 섬 프로젝트'가 7월 11일부터 16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렸다. 줍깅은 '줍기'와 스웨덴에서 시작된 환경운동 플로깅(Plogging)의 합성어다.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다는 뜻이 담겼다. 우리학교 참가자들은 5박 6일 간 제주 올레길 코스를 걸으며 제주도 환경 정화를 진행했다. 우리신문 노윤지 기자가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동행해 현장을 담았다.

공항을 나서며 맞이한 제주도의 여름은 뜨거웠다. 몇 차례 온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휴가가 아니라 취재 목적이다. 예쁜 옷과 카메라 대신 빨간색 단체복을 입고 원손에는 집게, 오른손에는 쓰레기봉투를 들었다. 이번 행사는 학생기획단 10명과 양 캠퍼스 재학생 80여 명이 참여했다. 약 100명, 총 10조로 구성된 우리학교 학생들은 5박 6일 동안 제주도 올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다. 같은 학교지만 일면식은 없었다.

모두가 쓰레기를 줍는다는 목적 하나로 모였다. 걷기 시작하면서는 어색한 분위기가 감돌았지만 걸음걸음이 말소리로 가득해지는 건 금방이었다. 같은 목적을 위해 제주도 하늘 아래 모였다는 공감대 때문이었다.

1일차의 올레길은 클린올레 7-1 코스였다. 올레길을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에 클린올레라는 이름이 붙었다. 13km에 달하는 길은 쉽지 않았다. 올레길 곳곳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로 봉투가 금세 찼다. 캔, 플라스틱컵, 폐우산, 심지어는 옷가지도 있었다.

2시간가량 걷다 보니 발끝이 질퍽했다. 습한 날씨 턱에 땅이 질었다. 흰색이었던 신발은 갈색으로 변해갔고 땀범벅이 된 얼굴에는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이때 어디선가 “파이팅!” 소리가 들려왔다. 학생 대열의 가장 앞에 나섰던 이재백 총학생회장이었다. 모두에게 격려를 건네는 목소리에 하나둘 파이팅을 따라 외쳤다. 중간에 있던 기희 단 학생은 어느새 간격이 벌어진 조 사이로 와 함께 걷고 있었다.

숙소에 도착해서는 수박을 하나씩 베어물고 조별 활동을 진행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여태껏 먹어본 수박 중에 가장 맛있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하루가 끝났다는 안도감이 커다. 웃음이 보태진 것은 조별 구호를 뽐내는 시간이었다. 모여앉은 모두를 둘러보며 입을 떼던 조장은 긴장된 모습이 역력했다. “제주도인 만큼 저희 9조는 제주도에 알맞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주 삼다9~”

2일차 목표는 클린올레 7코스와 8코스였다. 도합 20km가 넘는 여정이었다. 어제 받은 체크무늬 바지와 밀리터리 바지로 옷을 맞춰 입었다. 민간인의 느낌이 나지 않았다. 하루 겪어 봤다고 다들 비장한 기색이었다. 걷는 중에는 비가 내렸다. 악천후로 힘들었던 것도 잠시 더위를 한풀 꺾는 시원한 바람이 불었다. 놓친 쓰레기가 있지는 않을까 땅에 시선을 고정하다가도 땀을 닦으면서 고개를 들면 눈앞에 바다가 수를 놓았다.

10km 정도를 걸어 월평포구 인근 해수욕장에 도착했다. 산을 걷는 올

레길 코스에서는 맡지 못했던 바다 냄새가 가득했다. 해수욕장에서 바당길 정화활동을 진행했다. 올레길 봉투보다 더욱 큰 포대자루를 바다 쓰레기로 가득 채웠다.

약 한 시간 가량 정화활동을 한 뒤 자유시간이 주어졌다. 이쪽에서는 바다에 발을 담궜고 저쪽에서는 모래사장에 주저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바다에 뛰어들어가는 사람도 있었다. 젖은 옷을 걱정하니 여기까지 왔는데 한 번 빠져야 한다고 했다. 몇 분간 말없이 곧게 뻗은 수평선을 바라봤다. 그동안의 고민과 걱정은 바다 앞에서 한없이 작았다. 바다는 상념을 잡재우는 힘이 있는 듯했다. 온몸이 젖은 상태로 올레길 8코스에 돌입했다. 여전히 주워야 할 폐트병, 캔, 비닐 쓰레기가 많았다.

3일차, 첫 일정은 올레길 가파도 코스였다. 가파도로 들어가기 위해 배를 탔다. 제법 여행의 느낌이 났다. 뱃멀미를 걱정하는 친구 옆에서 말동무를 하다 보니 도착은 금방이었다. 파도가 섬을 덮어서 가파도라는 설이 있다고 했다. 눈에